



통일신라 범종명문

8-1 오대산 상원사 종 명문의 이해

학습목표

- I. 상원사 동종의 명문을 통해 이 범종의 조성 배경을 이해한다
-

08 통일신라 범종 명문

1. 상원사종 명문
2. 무진사종 명문
3.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명문
4. 연지사종 명문
5. 선림원지종 명문
6. 규흥사종 명문

- 현존하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범종(梵鐘)



-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형 종의 원형을 갖추고 있음.
- 현재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있으나 원래 있던 곳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본래 경상북도 안동부 누문(樓門)에 있던 것을 1469년 (조선 예종 1)에 왕실 원찰인 오대산 상원사로 옮겼다고 전함. 안동 지역의 사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입지름 91cm

01 상원사종 명문

- 천판(天板)에 용뉴를 사이에 두고 좌·우측에 각 4행씩 1행에 8~9자, 총 70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음. 글자크기 2.1cm



천판(天板)에 새겨진 명문

01 상원사종 명문



衆僧忠七冲安貞應
旦越有休大舍宅夫人
休道里德香舍上安舍
照南七匠仕大舍

開元十三年乙丑三月
八日鍾成記之都合鑄
三千三百鋌普衆
都唯乃孝直歲道直

開元十三年乙丑三月八日，鍾成記之。

개원(開元) 13년 을축년(725, 성덕왕 24) 3월 8일에 종을 이루고 기록한다.

都合鋤三千三百鋌.

모두 합하여 유(鋤) 3,300 덩어리[鋌]이다.

- 정(鋌) : 신라에서 금속을 헤아리는 단위로 ‘鋌’으로도 표기한다. 정확한 중량은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로 현재 상원사종의 중량은 1천 2백 90kg으로, 이를 3,300으로 나누면 약 0.39kg이 된다. 다만 다른 종의 사례로 볼 때 기록된 금속의 무게는 종의 재료만이 아니라 비용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上座]普衆, 都唯乃孝☐, 直歲道直, 衆僧忠七·沖安·貞應.

[상좌(上座)]는 보중(普衆), 도유내(都唯乃)는 효☐(孝☐), 직세(直歲)는 도직(道直), 일반 승려는 충칠(忠七)·충안(沖安)·정응(貞應)이다.

ㄹ越有休大舍宅夫人休道里·德香舍·上安舍·照南毛.

단월(ㄹ越)은 유희(有休) 대사(大舍) 덕의 부인(夫人) 휴도리(休道里), 덕향사(德香舍), 상안사(上安舍), 조남택(照南毛)이다.

匠仕_ㅅ大舍.

장인(匠人)은 사_ㅅ(仕_ㅅ) 대사(大舍)이다.

- 종의 제작시기, 비용, 해당 사찰의 승려, 시주자, 장인 등이 기록되어 있음.
- 당시 사찰 조직의 구성을 알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사찰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단월(시주자)는 유희대사 덕의 가족으로 추정됨.
- 사찰의 규모나 시주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사찰은 유희 대사(大舍) 집안의 원찰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대사(大舍, 제12관등)라는 하급 귀족 집안이 상당한 규모의 종을 시주하고 있음이 주목됨.



통일신라 범종명문

8-2 무진사 종 명문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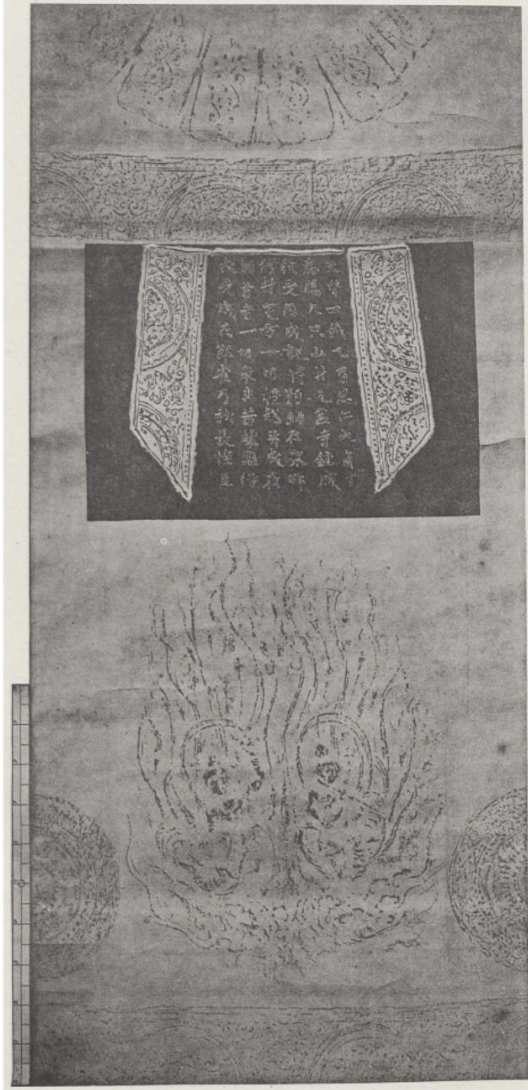
학습목표

- I. 일본에 전해지던 무진사 동종의 명문 내용을 통해 그 조성 배경을 이해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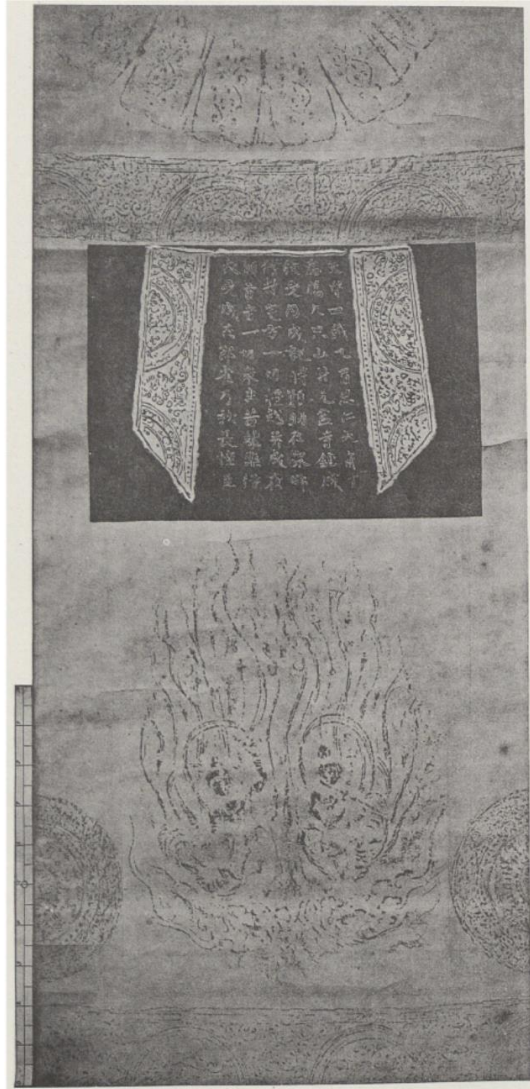


고쿠부하치만구[國府八幡宮]

- 무진사종은 본래 일본 쓰시마 섬[對馬島] 이즈하라초[嚴原町]의 고쿠부하치만구[國府八幡宮] 신사에 있었는데,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의 신불분리(神佛分離) 때 파괴되어 전하지 않음.



- 19세기에 제작된 탁본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對馬島 國府八幡宮鐘」이라는 이름으로 전함.
- 크기는 높이 2척4촌 (약 72cm), 지름 1척8촌6분 (약 56cm)
- 고려말 왜구의 침입 및 조선초 폐불 정책 실시 여파로 다수의 불상과 범종, 불경 등이 일본으로 넘어 갔는데, 이 종도 그 과정에서 일본 쓰시마 지역의 신사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됨.



天寶四載乙酉思仁大角干
爲賜夫只山村无盡寺鍾成
教受內成記時願助在衆邸
僧村宅方一切檀越并成在
願旨者一切衆生苦離樂得
教受成在節雀乃秋長幢主

天寶四載乙酉，思仁大角干爲賜，夫只山村无盡寺鍾成教受內成記.

천보(天寶) 4재(載) 을유년(745, 경덕왕 4)에 사인(思仁) 대각간(大角干)께서 부지산촌(夫只山村) 무진사(无盡寺)의 종을 이루도록 시키시어 이루고 기록함.

- 김사인 : 경덕왕 때의 재상. 745년부터 756년까지 상대등 역임.
- 부지산촌(夫只山村)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음.

時願助在衆邸僧村宅方一切檀越并成在.

그때 (사인 대각간의) 바람을 도왔던 여러 관료와 승려, 촌(村)과 택방(宅方)의 모든 단월(檀越)들과 함께 이루었다.

- 邸 : 신료들을 뜻하는 글자로 생각된다

願旨者, 一切衆生, 苦離樂得, 教受成在.

바란 뜻은 일체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서 이루었다.

節雀乃秋長幢主.

이때의 유내(唯乃)는 추장(秋長) 당주(幢主)이다.

- 작내(雀乃)는 내용상 유나(唯那)의 잘못. 유나는 본래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직임이지만 신라에서는 특정 작업의 감독자들도 유나라고 불렀다.
- 유나를 맡은 추장(秋長) 당주(幢主)의 당주(幢主)는 지방의 군사적 지휘관으로, 아마도 사찰이 있던 부지산촌(夫只山村)의 책임자로 생각된다.

- 명문에 의하면 이 범종은 당시 상대등이던 김사인의 발원에 의해 그와 관계 있는 여러 관료와 승려, 촌(村)과 택방(宅方)의 사람들이 동참여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 수도 경주나 지방의 주요 지역이 아니라 촌(村) 지역의 사찰에 만들었고, 종의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해당 사찰은 김사인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찰이고, 동참한 사람들 역시 김사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생각된다.

- 무진사가 있던 부지산촌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김사인이 북쪽 지방의 군사지휘관을 역임하였고, 군사 지휘관인 당주(幢主)가 조성 관리자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북쪽 국경 지대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김사인의 개인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일 가능성도 있다.
- 촌(村) 지역의 관료와 승려, 지역민들이 중앙의 고관을 위해 만든 종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명문의 문장은 이두문으로 국어사의 주요 자료가 된 : 爲賜, 敎受, 內, 在



통일신라 범종명문

8-3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명문의 이해

학습목표

1.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명문의 내용을 통해 이 범종의 조성 배경을 이해한다.
 2. 명문에 기록된 조성 담당자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

03 성덕대왕신종 (봉덕사종) 명문



성덕대왕 신종, 높이 3.66m, 입지름 2.27m, 두께 11~25cm, 무게 18.9톤

-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범종
-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 때에 완성되어 성덕왕의 원찰인 봉덕사(奉德寺)에 안치 (771년)
- 봉덕사는 본래 성덕왕이 무열왕을 위해 창건 시작, 아들 효성왕이 완성하여 성덕왕의 원찰이 됨.

03 성덕대왕신종
(봉덕사종) 명문



NO無1096-17

- 조선시대에 경주 북천의 범람으로 봉덕사가 물에 잠겨서 영묘사로 옮김.
- 이후 영묘사가 불타 없어져 경주성 남문 밖 봉황대에 누각을 짓고 안치.

경주 봉황대 성덕대왕신종 종각 전경,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29906

03 성덕대왕신종
(봉덕사종) 명문



복원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엽서, 일제강점기

- 1915년 경주박물관으로 이전,
1975년 현재의 경주박물관으로 이전.
- 가장 큰 한국의 범종.
- 1962년 국보로 지정.

03 성덕대왕신종
(봉덕사종) 명문



- 종의 몸통에 김필오가 지은 명문이 새겨져 있음
- 한쪽에 서(序) 24행, 반대쪽에 사(詞) 10행과 참여자 명단 11행

聖德大王神鍾之銘 [朝散大夫兼太子司議郎翰林郎金弼奧奉 [教撰

夫至道包含於形象之外視之不能見其原大音震動於天地之間聽之不能聞其響是故憑開假說觀三眞之奧載懸舉神鍾悟一乘之圓音夫其鍾也稽之佛土則驗在於闍膩尋之帝鄉則始制於鼓延空而能鳴其響不竭重爲難轉其體不裹所以 [王者元功克銘其上羣生離苦亦在其中也伏惟 [

聖德大王德共山河而并峻名齊日月而高懸舉忠良而撫俗崇禮樂而觀風野務本農市無濫物時嫌金玉世尙文才不意子靈有心老誠四十餘年臨邦勤政一無干戈驚擾百姓所以四方隣國萬里歸賓唯有欽風之望未曾飛矢之窺燕秦用人齊晉替霸豈可并輪雙轡而言矣然雙樹之期難測千秋之夜易長晏駕已來于今三十四也頃者 [孝嗣景德大王在世之日繼守 [

丕業監撫庶機早隔 [慈規對星霜而起戀重違 [嚴訓臨闕殿以

增悲追遠之情轉悽益魂之心更切敬捨銅一十二萬斤欲鑄一丈鍾一口立志未成奄爲就世今 [我聖君行合 [祖宗意符至理殊祥異於千

古令德冠於常時六街龍雲蔭灑於玉階九天雷鼓震響於金闕菓米之林離離乎外境非煙之色煥煥乎京師此卽報茲誕生之日應其臨政之時也仰惟太后恩若地平化黔黎於仁教心如天鏡獎父子之孝誠是知朝於元舅之賢夕於忠臣之輔無言不擇何行有愆乃顧遺言遂成宿意爾其有司辦事工匠畫模歲次大淵月惟大呂是時日月替暉陰陽調氣風和天靜神器化成狀如岳立聲若龍音上徹於有頂之巔潛通於無底之下見之者稱奇聞之者受福願茲妙因奉翊 [尊靈聽普聞之清響登無說之法筵契三明之勝心居

一乘之眞境乃至瓊萼之叢共金柯以永茂邦家之業將鐵圍而彌昌有情無識慧海同波咸出塵區并昇覺路臣弼奧拙無才敢奉 [聖詔貸班超之筆隨陸佐之所述其 [願旨銘記于鍾也

翰林臺書生大奈麻金符皖書

[명문]

其詞曰

紫極懸象	黃輿啓方	山河鎮列	區宇分張	東海之上	衆仙所藏
地居桃壑	界接扶桑	爰有我國	合爲一鄉	元元聖德	曠代彌新
妙妙清化	遐邇克臻	將恩被遠	與物霑均	茂矣千葉	安乎萬倫
愁雲忽慘	慧日無春	恭恭孝嗣	繼業施機	治俗仍古	移風豈違
日思嚴訓	常慕慈輝	更以脩福	天鍾爲祈	偉哉我后	盛德不輕
寶瑞頻出	靈符每生	主賢天祐	時泰國平	追遠惟勤	隨心願成
乃顧遺命	于斯寫鍾	人神獎力	珍器成容	能伏魔鬼	救之魚龍
震威暘谷	清韻朔峯	聞見俱信	芳緣允種	圓空神體	方顯聖蹤
永是鴻福	恒恒轉重				

翰林郎級澆金弼奧奉

詔撰

待

詔大奈麻姚湍書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

副使執事部侍郎阿澆金體信

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并檢

判官右司祿館使級澆金忠得

校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臣

判官級澆金 忠封

金邕

判官大奈麻金

如苻庾

檢校使肅政臺令兼修城府令檢

錄事奈麻金

一珎

校感恩寺使角干臣金良相

錄事奈麻金

張幹

錄事大舍金

☒
☒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鑄鍾大博士大奈麻朴從鎰

次博士奈麻朴賓奈

奈麻朴韓味 大舍朴負缶

聖德大王神鍾之銘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의 명(銘)

朝散大夫 兼 太子司議郎 翰林郎 金弼奧奉教撰.

조산대부(朝散大夫) 겸 태자사의랑(太子司議郎) 한림랑(翰林郎) 김필오(金弼奧)가 왕명을 받들어 지음.

夫至道包含於形象之外，視之不能見其原，大音震動於天地之間，聽之不能聞其響。是故，憑開假說，觀三眞之奧載，懸舉神鍾，悟一乘之圓音。

무릇 지극한 도(道)는 형상의 바깥까지 포함하므로 보아도 그 근원을 볼 수 없고, 큰 소리는 천지 사이에 진동하므로 들어도 그 울림을 들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임시로 가설(假說)을 제시하여 삼진(三眞)의 심오한 뜻을 살펴보게 하고, 신종(神鍾)을 내걸어 일승(一乘)의 원음(圓音)을 깨닫게 하셨다.

夫其鍾也，稽之佛土，則驗在於罽膩，尋之帝鄉，則始制於鼓延。

무릇 종이라는 것은, 불토(佛土=인도)에 상고해 보면 카니시카 왕[계니(罽膩)] 때에 있었고, 중국에서 찾아보면 고(鼓)·연(延)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空而能鳴，其響不竭，重爲難轉，其體不褻。所以王者元功，克銘其上，羣生離苦，亦在其中也。

비어서 소리를 잘 내므로 그 울림은 다함이 없고, 무거워 굴릴 수 없어 그 몸체는 구겨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왕의 위대한 공적을 그 위에 새기는 것이며,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그 안에 있다.

伏惟聖德大王，德共山河而并峻，名齊日月而高懸。舉忠良而撫俗，崇禮樂而觀風。

엿드려 생각하건대, 성덕대왕의 덕(德)은 산하(山河)와 같이 드높았고, 명성은 일월(日月)과 같이 높이 걸렸다. 충직하고 어진 이를 등용하여 속세를 어루만지고, 예악(禮樂)을 숭상하여 풍속을 살피셨다.

野務本農, 市無濫物. 時嫌金玉, 世尙文才, 不意子靈, 有心老誠.

들에서는 근본이 되는 농업에 힘썼고, 시장에는 낭비되는 물건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금옥(金玉)을 싫어하였고, 세상에서는 문재(文才)를 숭상하

였다. 뜻하지 않게 아들을 잃어 늙도록 조심하고 삼감을 마음에 두었다.

四十餘年，臨邦勤政，一無干戈，驚擾百姓。所以四方隣國，萬里歸賓，唯有欽風之望，未曾飛矢之窺。燕秦用人，

40여 년 나라를 맡아 정사에 힘써 전쟁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거나 어지럽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까닭에 사방의 이웃나라가 멀리에서 복종해 왔는데, 오직 왕의 교화를 흠모하는 바람만 있었지 화살을 날릴 틈을 엿본 적은 없었다. 연나라와 진(秦)나라에서 사람을 잘 등용하고,

齊晉替霸，豈可并輪雙轡而言矣。然雙樹之期難測，千秋之夜易長。晏駕已來，于今三十四也。

제나라와 진(晉)나라에서 교대로 패권을 장악한 일과 어찌 수레를 나란히 하고 두 말의 고삐를 당기며 경쟁하듯 (비교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돌아가실 날[雙樹之期]은 예측하기 어렵고 세월은 쉽게 흘러가니, (성덕대왕께서) 승하하신지도 이미 지금에 34년이 되었다.

頃者，孝嗣景德大王，在世之日，繼守丕業，監撫庶機。早隔慈規，對星霜而起戀，重違嚴訓，臨闕殿以增悲。追遠之情轉悽，益魂之心更切

지난 날 효성스러운 후계자인 경덕대왕(景德大王)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왕업을 계승하여 여러 일에 힘썼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어 세월을 대할수록 그리움이 일었고, 거둬 아버지를 떠나보내어 대궐에 나아갈수록 슬픔은 더해졌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슬퍼지고 영혼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敬捨銅一十二萬斤，欲鑄一丈鍾一口，立志未成，奄爲就世。

삼가 구리 12만 근(斤)을 희사하여 1장(丈)이나 되는 종 1구(口)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今我聖君, 行合祖宗, 意符至理, 殊祥異於千古 令德冠於常時.

지금의 우리 성군(聖君)께서는 행실이 조종(祖宗)에 합치되고, 그 뜻이 지극한 이치에 부합하여 빼어난 상서로움은 지난 어느 세월보다 기이하며, 아름다운 덕은 이 시대의 으뜸이다.

六街龍雲，蔭灑於玉階，九天雷鼓，震響於金闕。菓米之林，離離乎外境，非煙之色，煥煥乎京師。此卽報茲誕生之日，應其臨政之時也。

거리[六街]의 용구름이 궁궐의 계단에 음덕의 비를 뿌리고, 온 하늘[九天]의 우레가 대궐에 울려 퍼졌다. 과일과 쌀의 숲이 변경까지 주렁주렁 늘어지고, 연기 없는 빛(=무지개)이 서울에 환히 빛났다. 이러한 (상서(祥瑞)들은) 바로 탄생하신 날을 알려준 것이요, 정사에 임한 때에 응답한 것이다.

仰惟太后，恩若地平，化黔黎於仁教，心如天鏡 獎父子之孝誠。是知朝於元舅之賢，夕於忠臣之輔，無言不擇，何行有愆。乃顧遺言，遂成宿意。

우리러 생각건대, 태후(太后)께서는 은혜로움이 땅처럼 공평하여 백성[黔黎]을 인교(仁教)로 교화하시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 부자(父子)의 효성을 장려하였다. 이에 아침에는 왕실 어른들의 어짊과 저녁에는 충신의 보필을 받아 말을 가리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었겠는가. 이에 (경덕왕의) 유언을 돌아보고 마침내 숙원을 이루고자 하였다.

狀如岳立，聲若龍音．上徹於有頂之巔，潛通於無底之下．見之者稱奇，
聞之者受福．

형상은 산악과 같이 서 있고, 소리는 용의 소리와 같아 위로 유정천(有頂天)의 꼭대기까지 뚫고 무저곡(無底谷)의 아래로 잠길 정도였다. 이를 본 자는 기묘함을 칭송하였고, 소리를 들은 자는 복을 받았다.

爾其有司辦事，工匠畫模。歲次大淵，月惟大呂。是時，日月替暉，陰陽調氣，風和天靜，神器化成。

담당 관청[有司]에서 일을 준비하고 공장(工匠)은 모형을 만드니, 때는 해(亥)의 년[大淵]이요, 월은 12월[大呂]이었다. 이때 일월이 교대로 빛을 내고 음양이 기를 조화롭게 하고, 바람이 온화하고 하늘이 고요하여 신기(神器: 종)가 완성되었다.

願茲妙因，奉翊尊靈，聽普聞之清響，登無說之法筵。契三明之勝心，居一乘之眞境。

원컨대 이 오묘한 인연으로 존귀한 영령(英靈)을 받들어 도와 보문(普聞)의 맑은 소리를 듣고 무설(無說)의 법연(法筵)에 오르게 하소서. 삼명(三明)의 수승한 마음에 계합하고 일승(一乘)의 참된 경지에 머물게 하옵소서.

乃至瓊萼之叢，共金柯以永茂，邦家之業，將鐵圍而彌昌。有情無識，慧海同波，咸出塵區，并昇覺路。

나아가 왕손들[瓊萼]이 황금가지와 같이 영원히 무성하게 하고, 나라의 왕업이 철위산(鐵圍山)처럼 창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바다에서 함께 파도치다가 모두 세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에 오르게 하소서.

臣弼奧拙無才，敢奉聖詔，貸班超之筆，隨陸佐之言，述其願旨，銘記于鍾也。

翰林臺書生大奈麻金符皖書。

신(臣) 필오(弼奧)는 문장이 졸렬하고 재주가 없음에도 감히 왕명을 받들어 반초(班超)의 붓을 빌리고 육좌(陸佐)의 말을 따라 그 발원의 뜻을 서술하여 종에 새겨 기록합니다.

글씨는 한림대 서생(書生) 대나마(大奈麻) 김부환(金符皖)이 씁니다.

그 사(詞)에서 이르길,

하늘[紫極]에 천문이 걸리고, 땅에 方位가 열리니

산과 강이 자리를 잡고, 영토가 나뉘어 펼쳐졌네.

동해의 바닷가 못 신선이 숨은 곳,

땅은 복숭아 골짜기에 있고, 해 뜨는 곳[扶桑]에 닿아 있네.

其詞曰

紫極懸象 黃輿啓方.

山河鎮列 區宇分張.

東海之上 衆仙所藏.

地居桃壑, 界接扶桑.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 합하여 한 고을이 되었네.
크고도 큰 성인의 덕, 대대로 밝아 더욱 새로워지고
오묘한 맑은 교화, 멀거나 가까운 곳에 능히 이르고
은혜가 멀리까지 미쳐 사물과 함께 고르게 젖었네.
무성하도다, 자손들이여. 안락하도다, 백성들이여.

爰有我國，合爲一鄉。
元元聖德 曠代彌新。
妙妙清化，遐邇克臻，
將恩被遠，與物霑均，
茂矣千葉，安乎萬倫。

구름이 문득 애처롭더니, 태양에 봄이 없어졌네.

愁雲忽慘 慧日無春.

공경스럽고 효성스런 후손이 왕업을 이어 정사를 베풀네.

恭恭孝嗣 繼業施機.

옛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니 풍속에 어찌 어김이 있으리오.

治俗仍古 移風豈違.

날마다 아버지 가르침 생각하고, 항상 어머니 지혜 따르네.

日思嚴訓 常慕慈輝.

다시 명복을 빌고자 하늘에 종으로 기원하셨네.

更以脩福 天鍾爲祈.

위대하도다, 우리 임금님! 성대한 덕이 가볍지 않으니	偉哉我后 盛德不輕.
상서로운 일 자주 나타나고 신령스러운 징조 자주 생기네.	寶瑞頻出 靈符每生.
임금님 어질어 하늘이 도우니 나라는 태평 시절인데	主賢天祐 時泰國平.
조상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마음에 따라 바람을 이루셨네.	追遠惟勤 隨心願成.
마침내 유명(遺命)을 돌아보고 이에 종을 만드니,	乃顧遺命 于斯寫鍾.

사람과 귀신이 힘을 모아 진귀한 모습 이루었네.

人神獎力 珍器成容.

능히 마귀를 항복시키고 물고기와 용도 구제할만하니,

能伏魔鬼 救之魚龍.

위엄은 양곡(暘谷)에 떨치고 맑은 소리 북쪽 봉우리에 올리네.

震威暘谷 清韻朔峯.

듣고 보는 이 모두 믿음을 일으키니, 꽃다운 인연이 뿌려졌네.

聞見俱信 芳緣允種.

월만하고 텅 빈 신비한 몸 성인의 자취를 드러내리니

圓空神體 方顯聖蹤.

영원토록 큰 복(福)이 끊임없이 거듭되리라.

永是鴻福 恒恒轉重.

翰林郎 級滄 金弼奧 奉詔撰

한림랑(翰林郎) 급찬(級滄) 김필오(金弼奧)가 왕명을 받들어 지음.

待詔 大奈麻 姚湍 書

대조(待詔) 대나마 요단(姚湍)이 씀.

檢校使 兵部令 兼 殿中令 司馭府令 修城府令 監四天王寺府令 并 檢校眞智大王寺使 上
相 大角干 臣 金鬮

검교사(檢校使)는 병부령(兵部令) 겸 전중령(殿中令) 사어부령(司馭府令) 수성부령(修城府令) 감사천왕사부령(監四天王寺府令)이며 검교진지대왕사사(檢校眞智大王寺使)인 상상(上相) 대각간(大角干) 신(臣) 김옹(金鬮)

김옹 : 경덕왕 때에 시중을 역임. 혜공왕 때에도 최고 재상으로 재임.

檢校使 肅政臺令 兼 修城府令 檢校感恩寺使 角干 臣 金良相.

검교사는 숙정대령(肅政臺令) 겸 수성부령(修城府令) 검교감은사사(檢校感恩寺使)인

각간 신 **김양상(金良相)**

김양상 : 경덕왕 때 김웅을 이어 시중 임명. 혜공왕 때 상대등. 혜공왕 사후 선덕왕으로 즉위.

副使 執事部侍郎 阿滄 金體信

부사(副使)는 집사부시랑(執事部侍郎)인 아찬(阿滄) 김체신(金體信)

判官 右司祿館使 級滄 金忠得

판관(判官) 우사록관사(右司祿館使)인 급찬 김충득(金忠得)

判官 級滄 金忠封

판관 급찬 김충봉(金忠封)

判官 大奈麻 金如芴庾.

판관 대나마 김여잉유(金如芴庾).

녹사(錄事) 내마(奈麻) 김일진(金一珍)

錄事 奈麻 金一珍

녹사 내마 김장헌(金張幹)

錄事 奈麻 金張幹

녹사 대사 김(金)▨▨

錄事 大舍 金▨▨.

대력(大曆) 6년 세차 신해(辛亥, 771) 12월 14일.
大曆六年歲次辛亥 十二月十四日.

鑄鍾大博士 大奈麻 朴從鎰

주종대박사(鑄鍾大博士) 대나마 박종일(朴從鎰)

次博士 奈麻 朴賓奈, 奈麻 朴韓味, 大舍 朴負缶

차박사(次博士) 내마 박빈내(朴賓奈), 내마 박한미(朴韓味), 대사 박부부(朴負缶)

- 국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명복을 빌기 위해 왕실의 역량을 동원하여 범종을 조성
 - 성덕대왕신종의 주조에 앞서 경덕왕 때에 구리로 여러 대형 범종과 불상을 주조
- 그러한 흐름 속에 가장 완성된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이 출현하게 됨

- 『삼국유사』 탑상편 <황룡사종 분황사약사 봉덕사종(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754년에는 경덕왕의 전비(前妃)인 삼모부인의 발원,
구리 49만 7천 5백 81근(斤)으로 크기 1장(丈) 3촌(寸)의 황룡사종 조성
755년에는 구리 30만 6천 7백근으로 분황사의 약사여래상 조성
- 8세기 중엽의 경제력과 구리 주조 기술 등을 반영
cf. 750년대에 일본에서도 동대사(東大寺) 등에 대형 불상을 조성



통일신라 범종명문

8-4 연지사 종 명문의 이해

학습목표

1. 일본의 신사에 소장되어 있는 연지사 종 명문의 내용을 통해 그 조성 배경을 살펴본다.
 2. 지방 사찰에서의 범종 조성 상황을 살펴본다.
-

04 연지사종 명문



쥬구신사[常宮神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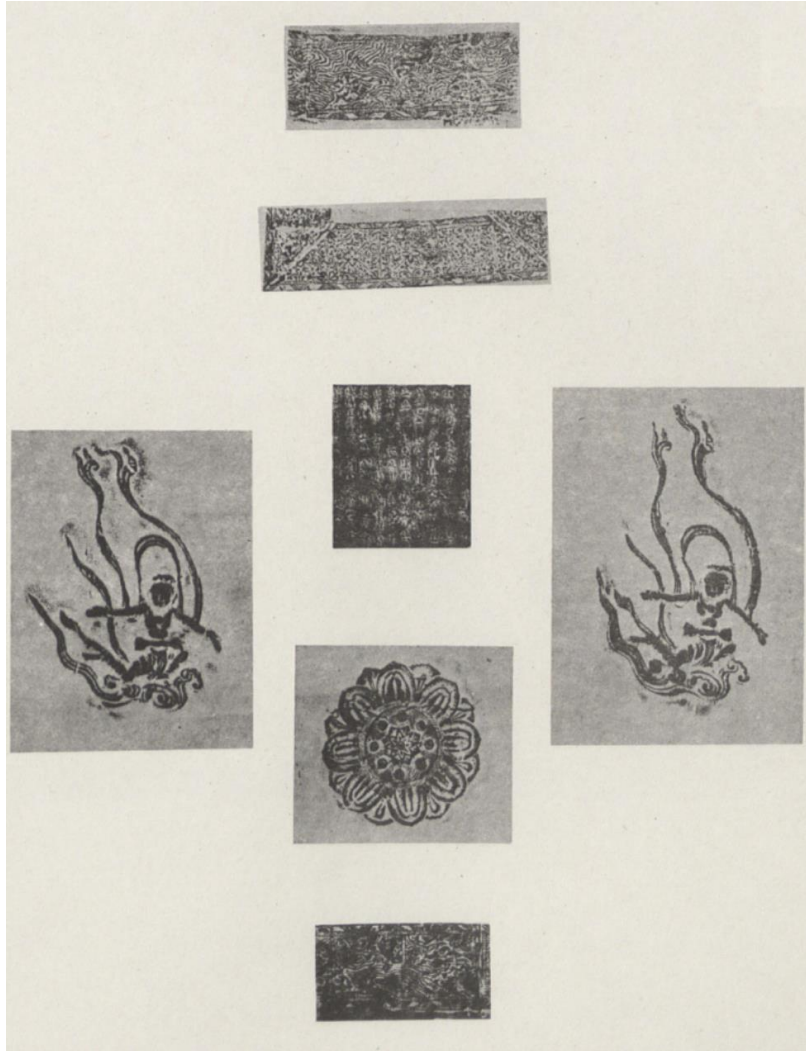
- 9세기에 신라의 청주(靑州,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연지사(蓮池寺)에 있던 종.
- 현재는 일본 후쿠이 현[福井縣] 츠루가 시[敦賀市] 쥬구신사[常宮神社]에 소장되어 있음.
-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음.



-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오타니[大谷]가 가져와서 1593년에 이 신사에 봉납했다고 전함.
- 1593년 6월 29일에 진주성이 함락 당시 약탈되었을 가능성.
- 혹은 임진왜란 이전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함.
- 8세기의 종과 형태나 조각에 차이가 있음.
- 몸통 부분에 10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음

연지사종, 높이 111.1cm, 종신 88.3cm, 입지름 66.3cm, 조선고적도보

04 연지사종 명문



太和七年三月日菁州蓮池寺
 鐘成內節傳合入金七百十三廷
 古金四百九十八廷加入金百十廷
 成典和上 惠門法師 惠法師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鄉村主 三長及干 朱雀大朶
 作韓舍 寶清軍師 龍年軍師
 史六 三忠舍知 行道舍知
 成博士 安海哀大舍 哀大舍
 節州統 皇龍寺 覺明和上

연지사종 탁본, 높이 111.1cm, 구경 66.3cm, 조선고적도보

太和七年三月日, 菁州蓮池寺鐘成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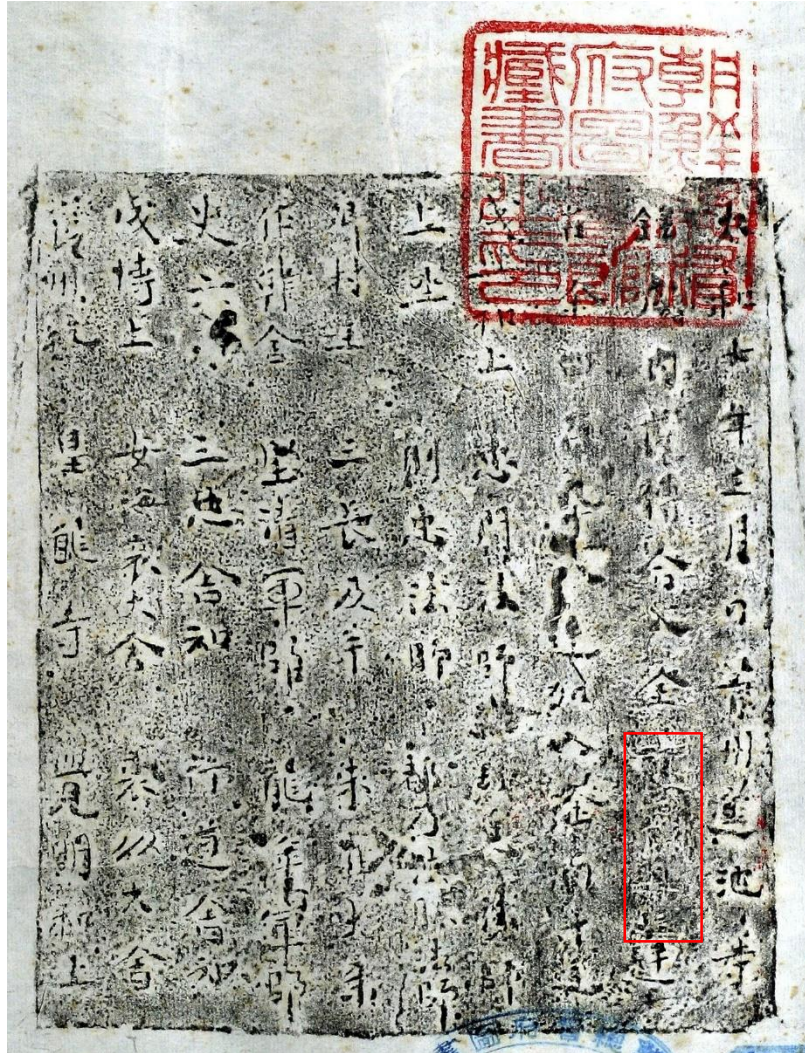
태화(太和) 7년(833, 흥덕왕 8) 3월 일에 청주(菁州) 연지사종(蓮池寺鐘)을
이름.

節傳合入金七百十三延, 古金四百九十八延, 加入金百十延.

이때 전해진 것을 합하여 쇠[金] 7백 13 정(延)을 넣었는데,
묵은 쇠가 498 정이고, 더 넣은 쇠가 110 정임.

- 투입된 쇠[金]의 양에 대한 기록이 애매한데 (옛 것 498정, 추가 110정, 합이 713정)이는 이후에 더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04 연지사종 명문



연지사종 탁본

- 다른 글자들은 양각인데 ‘七百十三’ 네 글자만 음각 : 후대에 글자를 수정한 것으로 보임

成典.

성전(成典)[은 다음과 같음]

和上, 惠門法師·☒惠法師,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화상(和上)은 혜문(惠門) 법사(法師)와 ☒혜(☒惠) 법사

상좌(上坐)는 측충(則忠) 법사, 도[유]내(都[唯]乃) 법승(法勝) 법사

郷村主, 三長及干·朱雀大朶,

향촌주(郷村主)는 삼장(三長) 급간(及干)과 주작(朱雀) 대내말(大乃末),

作韓舍, 堅淸軍師·龍牟軍師.

작한사(作韓舍)는 견청(堅淸) 군사(軍師)와 용모(龍牟) 군사,

史六㉔, 三忠舍知·行道舍知,

사육㉔(史六㉔)은 삼충(三忠) 사지(舍知)와 행도(行道) 사지,

成博士, 安海哀大舍·哀_㉔大舍.

만든 박사(博士)는 안해애(安海哀) 대사(大舍)와 애_㉔(哀_㉔) 대사.

節州統, 皇龍寺覺明和上.

이때의 주통(州統)은 황룡사(皇龍寺) 각명화상(覺明和上)이다.

- 범종 조성을 담당한 성전(成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승려들 이외에 향촌주(鄉村主), 작한사(作韓舍), 사육(史六) 등의 행정 책임자들도 보임
작한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軍師)는 군사지휘관으로 지방군의 책임자로 보임
- 본래 중앙의 왕실의 불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성전(成典)이 지방 사찰의 불사 관련 명문에도 등장하고 있음
- 지방의 행정책임자들과 승려들이 주도한 지방 사찰의 불사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임.



통일신라 범종명문

8-5 선림원지 종 명문의 이해

학습목표

1. 선림원지 종 명문의 내용을 그 조성 배경을 살펴본다.
 2. 중수를 통한 탑의 위상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 1948년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리의 선림원터에서 발견됨.
- 다음 해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 보관하다 한국전쟁 때 불에 타 크게 훼손됨.
- 남은 부분은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

05 선림원지중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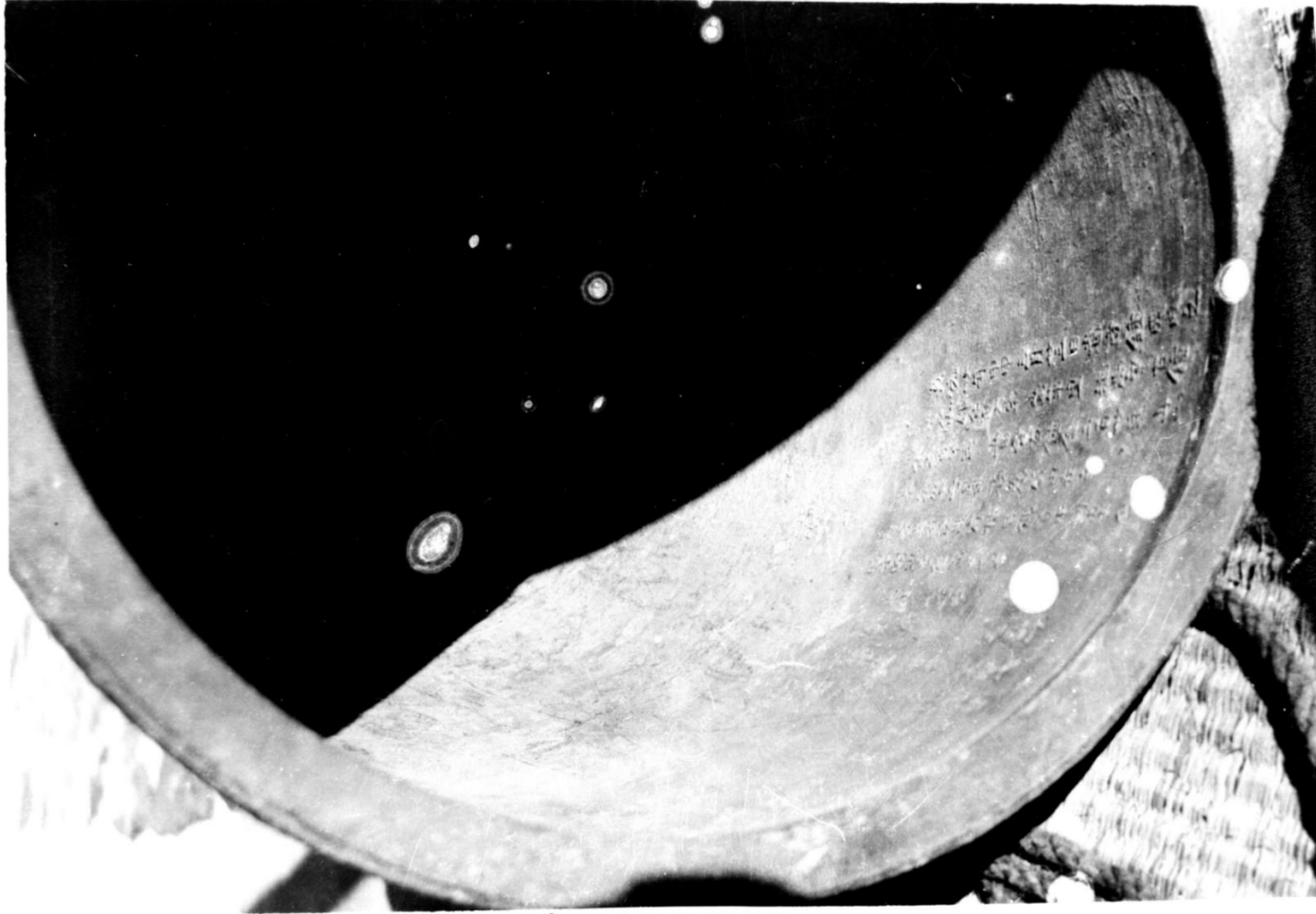


선림원터 범종 조각



한국전쟁 때 불탄 종을 바라보고 있는故 황수영 박사

05 선림원지종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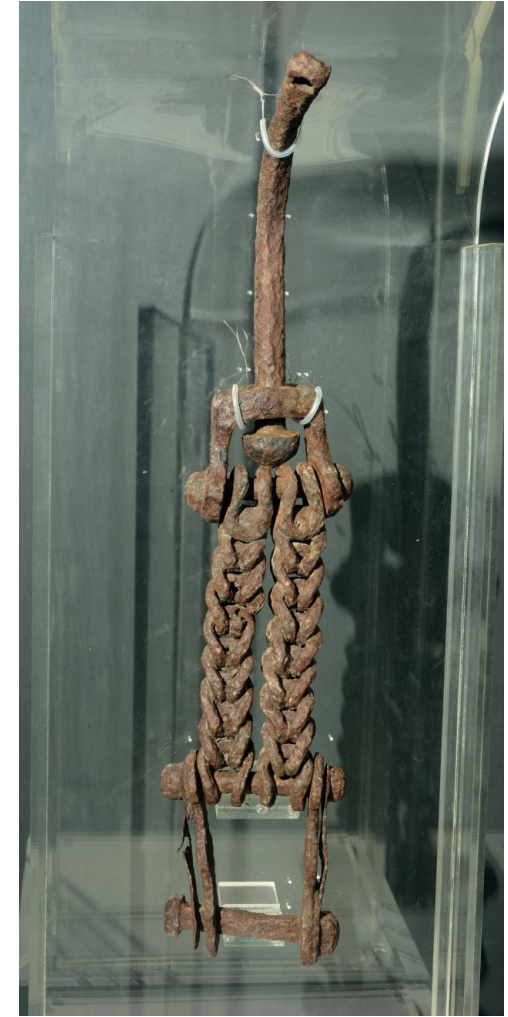


NO無450572

선림원지 범종 내부 명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36500

- 원래 크기 높이 122cm, 종신 96cm, 입지름 68cm
- 종 안쪽면에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음. 14행 143자.
-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복원, 명문도 사진으로 확인됨

05 선림원지종 명문



선림원지 범종과 걸쇠,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05 선림원지중 명문



선림원지 범종 명문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
 古尸山郡仁匠大朶〔紫草里〕施賜乎古鍾
 金二百八十廷當寺古鍾金二百廿廷此以
 本爲內十方旦越勸爲成內在之
 願旨是者法界有情皆佛道中到內去誓內
 時寺聞賜主信廣夫人君

上坐 令妙寺 日照和上
 時司 元恩師
 鍾成在伯士 當寺 覺智師
 上和上 順應和上
 良惠師 平法師
 善覺師 如於師
 禮覺師
 同說師

〔直〕司 誓師
 節唯乃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

정원(貞元) 20년 갑신년(804, 애장왕 5) 3월 23일에 당사(當寺)의 종(鍾)을 이루었다.

古尸山郡仁匠大乃末·紫草里施賜乎，古鍾金二百八十廷，當寺古鍾金二百廿廷，此以本爲內，十方旦越勸爲成內在之.

고시산군(古尸山郡)의 인장(仁匠) 대내말(大乃末)과 자초리(紫草里)가 시납하신 옛 종의 쇠[金] 280 정(廷)과 당사의 옛 종의 쇠[金] 220정, 이것으로 밀천을 삼아 시방(十方) 단월(旦越)에게 권하여 이루었다.

- 고시산군(古尸山郡) : 충청북도 옥천군의 신라시대 이름

願旨是者, 法界有情, 皆佛道中到內去誓內.

원하는 뜻은 법계(法界)의 생명 있는 존재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도록 나아갈 것을 서원하였다.

時寺聞賜主信廣夫人君.

이때 절에 알려주신 분은 신광부인군(信廣夫人君)이다.

上坐 令妙寺日照和上

상좌(上坐)는 영묘사(令妙寺)의 일조화상(日照和上),

- 상좌(上坐)는 사찰의 책임자, 경주 지역 사찰인 영묘사의 승려가 담당하고 있음

時司 元恩師

시사(時司)는 원은사(元恩師),

鍾成在伯士 當寺覺智師

종을 만든 백사(伯士)는 당사(當寺)의 각지(覺智)스님,

- 시사(時司)는 당시 사찰의 실제 책임자로 생각된다.

上和上 順應和上

상화상(上和上)은 순응화상(順應和上),

良惠師 平法師 善覺師 如於師 卍誓師

(그리고) 양혜사(良惠師)·평법사(平法師)·선각사(善覺師)·여어사(如於師)·卍서사(卍誓師),

[直]司 禮覺師

직사(直司)는 예각사(禮覺師),

節唯乃同說師

이때의 유내(唯乃)는 동설(同說)스님.

- 과거의 종 2개를 녹여 새로 종을 조성
- 장인[伯士]은 해당 사찰의 승려
-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사찰의 범종 조성에 충청도 옥천 지역 인물이 시주한 것이 흥미로움.
- 당시 사원 조직의 구성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음.
- 관료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에 의한 불사로 보임.

A night scene at a Korean temple. The sky is dark blue with many small white stars. Several glowing orange lanterns are hanging from strings across the top of the frame. In the lower right, a stone stupa with multiple tiers and a pointed top is visible. Behind it,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of a temple is partially seen, including a building with a tiled roof and green lattice windows.

통일신라 범종명문

8-6 규흥사 종 명문에 대한 검토

학습목표

1. 중화 3년명 금동원통함 명문의 내용을 통해 해당 탑의 창건 및 중수 상황을 이해한다.
 2. 기존 탑의 무구정광탑으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

-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 가미아가타군[上縣郡] 미네무라[峰村]의 카이진신사[海神神社], 속칭 키사카하치만[木坂八幡]에 보존되어 있던 신라시대 범종.
- 19세기 후반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의 신불분리(神佛分離) 때 소실됨.
- 소가[宗家] 구장(舊藏)의 『신사량문동악구등명(神社梁文鐘鐸口等銘)』와 히라야마[平山隼]가 편찬한 『쓰시마기사(津島紀事)』에 종의 명문이 수록되어 있음.
- 명문의 실제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大中[□]年丙子八月三日竅興寺

鐘成內矣合入鎡三百五十廷

都合市一千五十石[□][□][□][□][□][□]

初此願起在清嵩法師光廉和上

願爲內木者種種施賜人乃見

聞隨喜爲賜人乃皆無上菩提

成內飛也

節縣令含梁萱榮[□][□][□][□][□][□]

[□][□]時都乃[□][□]聖安法師[□][□][□]

上村主三重沙干堯王[□][□][□][□]

第二村主沙干龍河[□][□][□]

第三村主[□]及[□]干貴珎[□]及干

大匠大奈末馱溫衾

大中~~〇~~年丙子八月三日, 窺興寺鐘成內矣.

대중(大中) 10년 병자(856, 문성왕 18) 8월 3일에 규흥사(窺興寺)의 종을 이루었다.

- 규흥사(窺興寺)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조성 책임자가 현령(縣令)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 현(縣) 지역임을 알 수 있음

合入鋤三百五十延, 都合市一千五十石▨▨▨▨.

들어간 낫쇠[鋤]는 350정(延)인데, 모두 사는데[市] 1천 50석 ...

- 범종 조성에 쓰인 구리의 매입 비용이 기록되어 있음 : 1정(延)에 곡물 3석(石)

初此願起在, 清嵩法師·光廉和上.

처음에 이러한 바람을 일으킨 것은 청송법사(淸嵩法師)와 광렴화상(光廉和上)이다.

願爲內等者, 種種施賜人乃, 見聞隨喜爲賜人乃, 皆無上菩提成內飛也.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주하신 사람이나, 보고 듣고 함께 참여하신 사람이나,
모두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는 것이다.

節縣令, 含梁萱榮, 𠄎𠄎𠄎𠄎𠄎𠄎𠄎, 時都乃, 𠄎𠄎聖安法師𠄎𠄎.

이때의 현령(縣令)은 함량(含梁) 흰영(萱榮)이며, …… 당시의 도[유]내(都[唯]乃)는 … 성안법사(聖安法師) …

- 함량(含梁) : 의미를 알 수 없음. 관직 뒤에 보통 관등이 오는 것을 고려하면 중내마(重朶)를 잘못 판독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上村主 三重沙干堯王 $\square\square\square$, 第二村主 沙干龍河 $\square\square\square$, 第三村主 乃干貴珎 \square 及干.

상촌주(上村主)는 삼중사간(三重沙干) 요왕(堯王) …,

제2촌주는 사간(沙干)인 용하(龍河)…,

제3촌주는 급간(及干) 귀진(貴珎) … 급간(及干)이다.

大匠, 大奈末梁猷·溫衾.

대장(大匠)은 대내말(大奈末) 양궐(梁궐) 온금(溫衾)이다

- 사찰의 승려들이 발원하고, 사람들의 시주를 받아 조성한 범종이며,
- 조성에 현령(縣令)과 상촌주, 제2촌주, 제3촌주 등 지역의 유력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볼 때 해당 지역의 주요 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범종 조성에 들어가 구리의 액수와 그 가격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경제생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상촌주, 제2촌주, 제3촌주 등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지방사회의 행정 구조를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통일신라 범종명문

학습자료(퀴즈 및 토론, 참고문헌 등)

연습문제 및 풀이

1. 다음의 신라 범종 중 실물이 온전하게 전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무진사종
- ② 연지사종
- ③ 선림원지종
- ④ 규흥사종

(정답) ②

(풀이) 무진사종과 규흥사종은 일본 쓰시마섬의 신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메이지 시대 신불분리 정책으로 훼손됨.
선림원지종은 오대산 월정사에 봉안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때 화재로 훼손됨.
연지사종은 일본 후쿠이현 츠루가시의 신사에 봉안되어 있음.

2. 성덕대왕신종 명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한림랑인 김필오가 명문을 짓고, (한림)대조인 요단이 글씨를 썼다.
- ② 작업을 관리한 검교사, 부사, 판관, 녹사 등의 관료 명단을 기록하였다.
- ③ 불교계의 대표자인 국통과 사주 및 봉덕사 주요 승려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 ④ 종을 주조한 대박사와 차박사 등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정답) ③

(풀이) 성덕대왕신종 명문에는 주조 작업을 관리한 관료들의 명단과 종을 주조한 장인들의 명단은 기록하였지만 승려들의 명단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연습문제 및 풀이

3. 통일신라 시대 범종들의 명문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무진사종 명문에는 중앙의 고위 관료가 죽은 국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만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② 연지사종 명문에는 사찰의 승려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로 구성된 성전(成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 ③ 규흥사종 명문에는 지방민들이 발원하고 지방관과 촌주들이 후원하여 종을 주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④ 선림원지종 명문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대나마 부부가 희사한 종과 절에 있던 옛 종의 구리를 녹여 종을 새로 주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정답) ④

(풀이) 무진사종 명문에는 사인 대각간이 발원하고 여러 관료와 승려, 지방민들이 협력하여 종을 조성한 사실을 기록.

선림원지 명문에는 고시산군의 대나마 부부가 희사한 종과 절에 있던 옛 종의 구리를 합하여 종을 새로 조성하였다고 기록.

연지사종 명문에는 사찰의 승려와 지방의 행정 담당자들로 구성된 성전의 명단을 기록.

규흥사종 명문에는 승려가 발원하고, 현령과 촌주들이 조성을 감독한 사실을 기록.

4. 범종 명문에 보이는 다음 호칭 중 승려가 아닌 속인들도 사용한 것은?

- ① 화상(和上)
- ② 상좌(上座)
- ③ 유나(唯那)
- ④ 직세(直歲)

(정답) ③

(풀이) 유나(唯那)는 본래 사찰에서 승려들의 규율을 담당하는 직책의 호칭이지만 신라에서는 속인의 작업 책임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

연습문제 및 풀이

5. 규흥사종 명문에는 범종 재료인 유(鑪)의 가격이 나타나고 있다. 명문의 보이는 유(鑪)의 중량 단위 및 가격을 적으시오.

(정답) 정(廷), 1정에 곡물 3석

(풀이) 규흥사종 명문에서는 범종 재료인 유(鑪) 350정(廷)을 곡물 1,050 석(石)에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읽기자료

- 황수영, 「양양선림원지출토의 신라범종」, 『문화사학』10 (한국문화사학회, 1998년)
- [최응천 교수의 한국범종 순례] 성덕대왕신종 (불교신문 2017년 2월 22일)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93>
- [최응천 교수의 한국범종 순례] 일본 후쿠이현 조구진자 연지사종 (불교신문 2017년 5월 2일)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1>

참고문헌

1. 이우태, 「상원사종명」, 『한국금석문집성(16) 신라 금문 및 발해 금석문』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2. 이우태, 「무진사종명」, 『한국금석문집성(16) 신라 금문 및 발해 금석문』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3. 이우태, 「성덕대왕신종명」, 『한국금석문집성(16) 신라 금문 및 발해 금석문』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4. 이우태, 「선림원종명」, 『한국금석문집성(16) 신라 금문 및 발해 금석문』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5. 이우태, 「연지사종명」, 『한국금석문집성(16) 신라 금문 및 발해 금석문』 (한국국학진흥원, 2014년)
6. 남풍현, 「신라시대 이두문의 해독」, 『서지학보』9 (한국서지학회, 1993년)

08 통일신라 범종 명문

1. 상원사종 명문
2. 무진사종 명문
3.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명문
4. 연지사종 명문
5. 선림원지종 명문
6. 규흥사종 명문

09 통일신라 석등과 당간지주, 장생표 명문

1. 개선사지 석등 명문
2. 안양사 당간지주 명문
3. 통도사 장생(長生) 명문